

## 총선 D-120 공천혁명·물갈이 '격랑'

### 정치권 재창당·통합 '살아남기' 쇄신 여야 불출마 도미노 '물갈이 신호탄'

내년 총선(4월 11일)을 120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쇄신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 속에 내부 변화 없인 내년 총선·대선 승리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특히, 여야 모두 재창당과 통합 등으로 당의 면모를 일신하는 등 쇄신 경쟁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비종교적인 정치인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혁명 수준의 인적쇄신이 단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현역 정치인뿐 아니라 총선 입지자들은 향후에 펼쳐질 공천혁신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쇄신 경쟁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이후 한나라당은 쇄신 격랑에 휩싸였다. 12일 열린 의총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재창당준비위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을 놓고 격론이 이어졌다. 하지만, 공천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통합에 나섰다. 통합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지난 11일 열린 통합 결의 전당대회는 감동 없는 드라마로 막을 내렸다. 이 같은 민주당의 혼란은 결국,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석됐다.

◇불출마 도미노...물갈이로 이어진다=3선인 민주당 정장선 사무총장이 이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

서 한나라당 이상득·홍정욱 의원도 잇따라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출마 선언은 향후 정치권의 물갈이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같은 잇단 불출마 선언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선 의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쇄신 논란의 여론을 주시하고 있는 호남지역 다선 의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모 의원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불출마 도미노는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안철수 신드롬과 함께 신진 정치 세력의 등장을 갈망하는 여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자연스런 현역의 물갈이론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공천쇄신으로 이어질까=쇄신 경쟁이 가열되면서 여야 모두 공천혁명 공약하는 분위기다. 잇단 불출

마 선언도 새로운 당지도부에게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천혁명이 자칫 정파간 이해관계와 엮이면서 권력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다. 그동안 여야는 선거 때마다 공천 개혁을 내세웠지만, 기득권 싸움과 계파 나눠먹기 논란 등 극심한 후유증을 빚어왔다.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천쇄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총·대선 승리를 위해 여야 모두 쇄신작업에 몰두할 것이 확실시되고 이의 구체적 방안으로 공천개혁이 거론될 것"이라며 "참신한 인재의 수혈과 국민참여 확대 등 여러가지 공천개혁의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현역의원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되지 않고는 공천개혁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민주 야권통합 후유증 반대파 '전당대회 무효 가처분 신청' 시민통합당과 통합 세부절차 확정

민주당이 전당대회 통합 결의로 야권통합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은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통합을 위한 세부 절차를 확정하고 합당을 의결하는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야권 통합이 성사되면 당원수 120만명의 민주당과 조합원 80만명이 소속된 한국노총, 최근 세를 확장하고 있는 시민통합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거대 야당이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통합 대상인 시민통합당 수임기관과 합동회의를 하기에 앞서 민주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12일 열린 민주당의 수임기관 첫 회의가 통합반대파 측 위원이 불참한 채 '반쪽'으로 진행되는 등 의결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운 공방을 지속되면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 문제는 조

만간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이현주 위원은 "어제 전대에서 '내일 회의가 있을 것 같다'는 연락이 있어, 아직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수임기관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경솔하다고 항의했다"면서 "그 이후로 회의가 소집됐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은 단독전대 파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추천한 인사다.

통합에 반대하는 원외위원장 20여명은 이날 회동해 법적 대응 방안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박찬선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은 이날 "5400여명의 전국 대의원의 서명을 받고 현 지도부가 사퇴하는 전당대회를 요구했지만 최고위원 몇 명이 아합해 (그 의견을 무시하고 통합

을) 밀어붙였다"며 "서울중앙법원에 전당대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전대 폭력사태를 극복하고 '더 큰 민주당'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순화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저희가 보여드린 부끄러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저희가 통합을 반드시 이뤄야 하는 가장 절실한 이유"라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제 큰 산은 넘었다"며 "주저하지 말고 승승장구 국민에게 쇄신의 모습을 다가가자"고 호소했고, 이인영 최고위원은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여전히 진통을 겪는 사람도 있었지만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1일 전당대회

에서 통합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 대의원 5820명 가운데 찬성 4427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개표 결과를 놓고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최고위원회의와 전당대회 준비위를 거쳐 당무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통합안 가결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고 이석현 전대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2학년도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가'군  
원시접수 2011.12.22(목)~27(화)  
www.kwangshin.co.kr  
입학 문의 대학원 062)605-1115

### 알림

## 창사60주년 제47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 폴코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출발

최고의 전통, 최상의 코스, 최선의 진행을 자랑하는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내년 3월 1일 개최됩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세계민방에 알린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는 광주일보의 3·1절 마라톤은 2012년 창사 60주년과 제47회째 대회를 맞아 호남은 물론 전국 마라톤러들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열리게 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 폴코스는 아시아문화전당(구, 전남도청)에서 출발, 영산강변을 따라 송촌보를 반환하여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끝나는 코스로 광주·전남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모두 경유하는 수정된 명품코스로 대회가 치러집니다.

이번 대회는 코스를 최대한 직선화함으로써 도심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광주일보사는 이번 대회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 가족과 직장, 동호인들간의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봄의 활찬 기운이 약동하는 대지를 함께 달립니다.

1일 시 | 2012년 3월 1일(목) 08:30 ~ 16:00

출발시간 - 폴코스 08:30, 하프 09:00, 10km 09:10, 5km 09:20

종목 및 코스 | 폴코스 : 아시아문화전당 → 송촌보반환 → 광주월드컵경기장 끝남

하프, 10km, 5km : 광주월드컵경기장 → 만호초교방향 → 광주월드컵경기장 끝남

마 감 | 2012년 2월 7일(화)

문의 | 인터넷 홈페이지(http://kjarathon.co.kr) (062)220-0541

주 최 |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 관 | 광주육상경기연맹, 전남육상경기연맹

## 정부 내년 성장률 전망 3.7%로 낮춰

### 취업자 28만명 증가...민생안정에 정책 집중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3.8%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3.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3.2%로 올해보다 낮아지고 경상이수지는 160억달러 흑자를, 취업자는 28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세계적 경제위기에 선제로 대응하고자 내년 상반기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내수 부양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주제로 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중전처럼 4% '내외'로 하지 않고 전망치를 구체화한 것은 경제 둔화를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런 전망에 맞춰 내년 경

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토대로 공생 발전 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의 60% 내외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회복의 선봉자를 유도하는 등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1만4000명으로 4000명 늘리고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각각 4만명,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3.4%인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고졸자 비중은 내년 20%로 늘린다. 시행 성과를 토대로 향후 5년 내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 화병 이젠 한방(韓方)으로 다스린다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미국 정신과 협회는 96년 화병을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일종의 문화충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체면, 도리, 의무감을 중시하고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화병의 원인은 계속되는 스트레스, 억울한 감정, 억압적 환경,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 현실, 충격, 자식이나 배우자 외의 사별, 타인으로부터 서운한 감정, 사업의 실패, 억눌린 감정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제때에 신체에서 소화해내지 못하면 심장병, 중풍, 고혈압, 두통, 당뇨병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 화병은 무서운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화병의 가장 큰 신체적 특징은 상체로 혈액이 몰려서 열이 많고 하체는 혈액공급량이 적어서 허약해지고 차가워지는 현상 즉, 상열하한(上熱下寒)입니다. 상체의 증상으로 울혈증상이 있습니다. 인체의 상체로 피가 몰리는 현상으로 상체의 혈관이 팽창되어 안면홍조,

눈의 충열, 심장이 두근거림, 고혈압, 숨이 차고, 귀 울림, 목 근육 경직,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 감퇴가 오며, 머리에 열이 많아 땀이 많아집니다. 또한 상열증상으로 인해 얼굴 피부 건조, 마른기침, 끈끈한 가래, 비염, 안구 건조감, 탈모, 시력저하 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하체에는 스트레스, 성질, 화를 낼 때마다 혈액과 영양분이 상체로 올라가니 하체는 자연히 혈액공급량이 적어져 대장, 방광, 자궁, 골반, 허리, 무릎 다리가 차가워지고 하체전반부에 기능저하가 나타납니다. 하복부냉감, 대장(변비, 설사), 방광(요실금, 만성방광염), 자궁(생리통, 냉대하, 자궁근종), 골반(만성골반염, 요통, 디스크), 무릎관절염, 다리가 저리고 시린 증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화병이 오래 지속되면 전신의 기운이 약해져 전신 무력감, 불면증, 우울증, 의욕저하 만성피로가 되고, 음식물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고, 먹어도 항상 속이 허하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결국 화병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해소하는 것이 최상책이며 운동치료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 각각에게 어떠한 운동을 하라고 정해 주기도 하지만 각자 여러가지 운동을 해보아서 가장 스트레스가 잘 풀리는 운동을 택하면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하고 나서 더 스트레스 받고 열을 더 받을때는 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일 30분 이상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나고 즐거운 음악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거나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것도 정신과 육체의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체의 균형과 안정을 취해주는 한약 및 침을 사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마음이 안정되게 하며, 상체열을 하강시키고 하체는 따뜻하게 하여 심장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한의원) 전 선형 원장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진료 안내**  
• 화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냉면지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신회관 건너편 \*주차장 안내 (※진료 열 때만 열리니)

화정동 주택은행추신회관  
← 송정리 →      → 돌고개 →  
경희한의원      중앙병원